

장태산 개척자, 고(故)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조성 건의안

의안 번호	4628
----------	------

발의연월일 : 2026. 8. 27.

발의자 : 박순호 의원

찬성자 : 강정수, 설재영, 이원배, 최미자,
최병순, 김동성, 오세길, 신진미,
김태민, 정홍근, 정인화, 김세원,
정능호(13인)

1. 주 문

- 독립가 임창봉 선생과 장태산자연휴양림에 관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정리하고 이를 보존·전시할 공간을 조성할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장태산휴양림은 독립가 임창봉 선생이 오랜 세월 나무를 심고 가꾸어 조성한 숲에서 시작되어, 전국 최초의 민간 자연휴양림을 거쳐 시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의 자연휴양림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휴양림에는 임창봉 선생의 흉상과 일부 기록만 남아 있어, 선생의 삶과 숲의 조성 과정, 민간 자연휴양림의 탄생과 공공의 숲으로 이어진 장태산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수신처: 대전광역시장

4. 건의안: 별첨

장태산 개척자, 고(故)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조성

건의안



대전광역시서구의회

장태산 개척자, 고(故)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조성 건의안

장태산자연휴양림(이하 장태산휴양림)은 사계절 많은 이들이 찾는 대전 지역의 명소로,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과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은 장태산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장태산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한 사람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장태산휴양림은 독립가 고(故) 임창봉 선생이 나무와 숲에 쏟은 각별한 애정에서 시작되었다. 선생은 1972년부터 사재 200억 원을 들여 야산을 매입하고 20만 그루의 나무를 손수 심고 가꾸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장태산휴양림은 1991년 전국 최초의 민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었으며, 1992년 개장한 이후 연간 방문객이 30만 명에 이를 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경영난으로 휴양림이 경매에 부쳐지면서 장태산은 자연휴양림으로서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당시 임창봉 선생은 장태산휴양림이 시민의 공간으로 남기를 바랐고, 지역사회에서도 장태산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휴양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대전시는 2002년 법원 경매를 통해 장태산휴양림을 인수하였고, 휴양림을 재정비하여 2006년 재개장하였다.

오늘날 장태산휴양림은 메타세쿼이아 숲을 중심으로 산림욕과 생태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시민의 소중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장태산은 한 독립가의 오랜 헌신으로 시작된 숲이 공공의 자산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장태산휴양림에서 임창봉 선생의 삶과 숲의 조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휴양림에는 선생의 흉상과 일부 기록이 남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 년에 걸친 숲의 조성 과정과 민간 자연휴양림의 탄생, 그리고 공공의 숲으로 이어진 장태산의 역사를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첫째, 기존 장태산휴양림전시관을 비롯한 휴양림 내 시설을 활용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선생이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해 온 과정을 보여주는 당시의 사진과 기록물, 관련 자료 등을 조사·수집·정리하여 교육·전시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기록물 전시 공간을 숲 해설과 생태교육,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장태산을 자연과 역사, 교육이 함께하는 산림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장태산의 가치는 울창한 메타세쿼이아 숲에만 있지 않다. 오랜 세월 나무를 심고 가꾸며 숲을 일군 한 사람의 헌신, 그 숲을 지키고자 뜻을 모았던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마침내 시민 모두의 자산으로 이어진 과정까지 모두 장태산이 간직한 소중한 역사이다.

장태산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아름다운 숲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사람과 지역의 역사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임창봉 선생의 기록물 전시 공간 구성에 대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한다.

2026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